

월요광장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역시 세월이 약이다. 칠썩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되다가도 시간이 지나 새벽이 오면 동이 트면서 날이 밝아진다. 동학농민혁명이 거론되면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만 거론되고 정읍과 고창만 동학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무안에도 배상옥 장군이 있어 위의 세 분에 뒤지지 않을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물이 흐르듯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새벽이 동이 트듯이 무안에도 동학혁명의 큰 인물들이 구천과 기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밝은 태양으로 바뀌고 말았다.

무안 청계면에 달상배우 가문의 배상옥 장군이 있었다면, 몽탄면에는 나주김씨 가문의 김응문·김효문·김자문 3형제에 김자문의 아들 김여정 등 네 분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해제면에는 최창현·최선현·최기현 3형제의 의士들이 있었다. '동비' 즉 동학 반란군으로 처형당한 그들, 무서워서 후손이라고 밝히지도 못했지만, 그 긴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혁명군 장군이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사로 추앙되면서 현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몽탄면 차피마을 앞에는 '동학혁명투사형상비'

가 우람하게 서 있고, 해제면 석봉저에는 해주최씨 3의 사 실적비가 세워져 나라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지도자들을 기리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세월은 약이라고 했다.

더구나 김응문 장군의 묘소를 이장하다 마침내 김장군의 두상 유골이 온전하게 발견되었는데, 동학역사상 최초의 유골로 국보급의 유물로, 동학혁명의 비참상을 한눈에 보게 해 주는 참으로 귀한 유물이다. 참수형을 당한 장군의 유골이 발견된 사실은, 무안의 동학혁명은 가장 진실하게 역사를 밝히는 혁명이었음을 넉넉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더욱 확실한 역사적 사실의 하나는 배씨, 김씨, 최씨 세 가문은 이른바 무안의 양반 가문으로 유류 활동을 하던 집안들이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무안의 동학농민혁명은 사대부 가문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19세기 말, 다양한 신분 계층으로 이룩된 사회, 상류계층인 양반 가문은 혁명운동에 가담하기를 꺼린 것은 당연했는데, 무안지역은 특수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숫자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동학농민군이 죽임을 당한 전투는 세상이 다 아는 우금치전투였다. 그런 전투에 맞지 않은 전투가 무안의 고막포(지금은 함평군 지역) 전투였다. 수천 명의 농민군들이 무참히 쓰러져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왜군의 총포에 무너진 죽창부대의 무안 농민군,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대로 세월만 보낼 수 없다.

이제 동이 터 밝은 태양을 맞은 오늘 무안동학농민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면)가 주관하여 '무안동학농민

혁명기념관'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인가. 관계 당국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서 하루빨리 기념관이 완공되어 위대한 지도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민족의 역사에 빛나는 업적이 선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젊은 시절 동학혁명 연구에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려는 마음을 지녔었다. 그때는 동학 관계자료를 열심히 구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다산학 연구로 방향이 바뀌면서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1971년 대학가의 교련 반대 운동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대학원생으로 후배 대학생들과 함께 '녹두(綠豆)'라는 지하신문을 간행하여 대학가에 뿌린 적이 있다. '동학 혁명정신' '제폭구민' '보국안민' '광제 창생' '척양척왜' 등의 구호를 열거하고, 그런 숭고한 정신으로 학생운동을 일으켜 가혹한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었다.

사실 그 '녹두'는 뒷날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해 준 신문이 되어 좌경 빨갱이 운동이라는 비난을 학생운동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부여해 주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동학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했고, 나의 고향 무안의 동학운동에 관한 연구를 전혀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척양척왜의 동학 정신이 새삼스럽게 그리운 시절이다. 제폭구민하고 보국안민해야 할 때도 지금이다. 위대한 동학혁명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된 무안에 기념관을 세움으로써 동학역사가 제대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수필의 향기

나를 조문(弔問)하다



박용수
수필가·동산여고 교사

공원이어서 발길을 내민다. 담양 가는 길목, 갑향공원.

표지석들이 슬픈 눈빛으로 서 있다. 승화원. 이별의 무게는 작을수록 더 무겁다. 노인보다 청년, 아이에게 내 시선은 머문다. 무슨 사연, 어떤 운명으로 여기 있을까. 죽음이 이룬 마을을 서성인다.

그 뒤 몇 차례 더 찾았다. 딱히 아는 이는 없으나 한 번 낯을 익혔으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법. 막걸리 한 잔과 한 송이 국화를 바친다. 혼자였으니 내가 마셨고 나에게 헌화가 되었다. 생사의 경계에서 취객은 더 쓸 쓸하다.

내가 조문하는 고인은 대부분 생면부지다. 친구나 동료와 친하다고 해서 가깝까지 잘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고인보다 고인 사진 아래 쓰인 지인 이름부터 찾는다. 식장은 사자보다 산 자를 위로하러 간다.

얼마 전 조문도 그랬다.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물론 우리도 모른 채했다. 난 태연히 조

문했다. 고인이 아니라 지인을 보러 갔기 때문이다. 난 그의 용기와 비겁 사이, 보류와 선택 사이에서 시 시비비를 가릴 생각이 없다. 다만 그 끝이 허무하듯 내 끝 역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믿는다. 화려했던 쓸쓸했던 마지막 공연은 모두 공허한 법. 시작은 불공평했는지 모르나 막장은 언제나 분명하고 공평하다. 그 위로 비가 내리고 눈이 덮이고 낙엽이 덧없이 쌓일 것이다.

장례식장에 들어선다. 지명수배자처럼 걸린 고인들의 사진을 바라본다. 마지막 3일 동안만 전시될 미술관. 화구 앞에 철거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다.

구수를 훌쩍 넘긴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 시선은 나이 어린, 너무 서둘러 온 이들 앞에 머문다. 무엇이 그리 비뻤을까. 승화원에서처럼... 그러다가 문득 마주친 숫자, 시야에 확 들어온 1963. 난 그 숫자에 놀라 동공을 박고 한참 멈춰 서고 만다. 친구, 갑장. 토끼띠, 82학년...

저승이나 저옥에서 만나도 그 숫자 하나로 동질감을 나눴을 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나이 하나, 같은 이유로 격하게 꺼야한다.

그는 왜 여기 있을까. 어디가 아팠을까. 오랫동안 눈을 마주 보고 서 있다. 어쩌면 순서만 바뀌었지 내가 거기 있고, 그가 나를 바라본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가 나라면 그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베이비붐 세대, 필연적인 이혼향도,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과 3기 시대를 정면으로 관통한 386세대, 개

인보다 우리를 앞세운 마지막 공동체 시대. 초가지붕 슬레이트 아파트로, 집 한 칸 마린코자 애면글면 표류한 인생. 막걸리에서 소주로 그리고 소맥으로 갈아탄 비주류. 야간직업을 끝내고 귀향 열차 속에서 은하수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던 노동자들 혁명가들 그리고 로멘티시스트들.

어느 보리밭이나 원두밭에서 첫사랑을 속삭였고, 거리에서 최루가스를 마시고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으며, 산장이나 계곡에서 피로연을 했을, 추운 밤 집계를 들고 연탄을 갈고, 아파트에 입주해서 처음으로 아빠 노릇을 했을 사람.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문득 갑자기 마주한 저승사자, 낯선 종점.

그래도 짝지는 않았다. 욕 들지 않고 살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죄 없이 애면글면 살아왔을 것이다. 배고픈 시대, 가난한 국가, 차별받은 지역, 그 속에서 생은 비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를 위로한다. 그런 날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온 그를 거듭 위로하고 또 조문한다.

영광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삶, 그리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체성에 거듭 감사하며 고생했다고 가볍게 어깨를 토닥여준다. 뜨거운 불이 잠깐 육신을 태우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갈 것이라고, 그를 나 삼아 나를 조문한다. 어떤 생은 깨미죽이이었을지라도 다음 생은 명주잠자리로 멋지게 활강하길 바란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다. 맥장구름이 걷히고 하늘은 높푸르고 구름은 새하얗다.

기고

소형 원전(i-SMR) 논의, 지역에서도 필요하다



최영대
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지난해 3·4월 광주-전남은 10개월 가까이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다. 기상관측망을 전국으로 확충한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당시 수원지 역할을 하는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광주시는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 다행히 5월에 단비가 내려 제한급수 위기를 넘겼다.

옛말에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이 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飲水思源, 掘井之人)'에서 온 말로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마셔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뭄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제한급수와 물 절약 캠페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광주-전남에 식수·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면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못지 않게, 아니 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전기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은 대략 얼마나 되는 걸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광주시 146만여 명

이 1년간 쓰는 전력량은 90억kWh가 조금 넘으며, 189만명의 전남도는 340억kWh 정도를 사용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합쳐서 연간 약 430억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남이 대도시인 광주보다 3.8배나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전기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광양제철과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전력은 어디에서 공급받을까?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한 발전소는 영광의 한빛원전(67기)의 420억 kWh로, 이 가운데 한빛원전 1·2호기가 생산한 전력은 신광주 변전소를 통해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그 다음은 여수·순천·광양 등에 화력 200억 kWh, 태양광·풍력 60억kWh 등이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전남 곳곳에 깔려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영광원전 6기중 1기가 생산하는 분량보다도 작고, 광주시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전기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발전소가 한전에 전기를 파는 정산단기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8월 기준으로 태양광의 정산단가는 1kWh당 154원(여기에 REC 평균가격 78원이 추가됨), LNG 187원, 석탄 172원, 원자력 86원이다. 가장 비싼 태양광과 LNG가 늘어나면 전기요금 상승을 압박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올해는 8월에 이어 역대 가장 뜨거운 9월을 보낸 것

으로 나타났다. 또 AI 등 4차산업혁명으로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전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대용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 회귀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보강한 소형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 AI데이터센터 전력을 감당하려면 원전 53기를 추가 건설해야 할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 6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해 SMR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전력 공급을 위해 SMR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광주-전남도 광주공항 이전 시 그 부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전력 등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SMR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해 안전성이 기존 원전에 비해 1만배 이상 향상된 혁신적인 소형 원전 i-SMR 개발에 4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전남 일원에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광주-전남의 미래 전기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또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혁신형 소형 원전(i-SMR) 건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이다.

社說

노벨상 수상 한강, 광주 아픔 치유해줬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온 국민의 기쁨이지만 광주시민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5·18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통해 광주의 아픔을 치유해 줬기 때문이다.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한강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 한강의 소설 가운데 한림원의 설명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 '소년이 온다'이다. 한강은 광주에서 태어나 효동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이사갔지만 열세 살 무렵 아버지의 사진집에서 5·18의 참상을 접하고 5·18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소설을 쓰기 전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사망 당시 16세)군의 어머니를 만나러 올 정도로 5·18의 아픔을 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문군의 어머니 김갑지씨는 한강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렸

다고 한다. 김씨는 "그동안 5·18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는데 한강 작가가 큰 도움을 줬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때보다 더 기쁘고 광주의 아픈 상처를 치유 받는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5·18의 애곡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우세력들의 5·18 애곡 및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밤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은 5·18 당시 '북한 개입설'을 반박했다.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대표한다. 한강의 수상이 5·18을 세계에 알리고 애곡과 폄훼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상업지형 바꿀 '더현대' 추진 속도내야

복합쇼핑몰로서 광주의 상업지형을 바꿀 '더현대 광주'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면적 축소안을 통과시키기에 따라 큰 난관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더딘 행정절차와 경기침체 등 다양한 악재들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지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와 용도 비율 조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사업자 측은 늘어나는 상가 공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와 용도 면적을 광주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하향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지난달 재심의 결정을 받은 이후 재도전 끝에 통과했다.

사업자 측은 상가비용 감소로 절감 가능한 건축비용을 고려해 180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다. 사업자 측은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6월 착공, 같은 해 7~8월 4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더현대 광주'는 6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공공기여금 등 개발 비용 지출과 냉각된 부동산 시장, 급등한 인건비·공사비 등 3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비와 관련된 은행 이자만 하루 2억 원에 달하지만 각종 행정절차가 다디재 진행되면서 사업자측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악재와 6000억 원대에 달하는 역대급 공공기여금 등의 영향으로 '더현대'는 아파트 3.3㎡(평)당 분양가를 2000만 원대 후반에서 3000만 원대 초반의 고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 고분양가 부담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에 대해 치밀한 관리를 하되, 여러 악재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도 감안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無等鼓

노벨상은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다.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화학자 겸 기업가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유언에 따라 제정됐다. 그는 젊은 시절 폭발사업을 시작했지만 공장이 폭발해 동생과 직원 등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주위 반대로 공장을 세울 수 없어 호수에 배를 띄우고 안전한 폭약을 만드는 연구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다 마침내 노벨은 1866년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노벨 사후 친척들 간 재산 다툼이 있었지만, 수여규절 끝에 노벨상이 만들어진다. 알려진 유언은 '다이내마이트의 군사적 사용에 회의감을 느껴 재산을 기부해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노벨상은 모두 여섯 분야를 뽑는데 평화상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수여하고 나머지는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물리학상·화학상·경제학상), 아카데미(문학상),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시상한다.

올해 노벨문학상에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벨문학

상을 한국 작가가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한국인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타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강 작가는 광주 효동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다. 소설가인 부친 한승원이 중앙문단에서 활동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을 때를 띄우고 안전한 폭약을 만드는 연구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다 마침내 노벨은 1866년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땀'이 당선돼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노벨문학상은 서구 남성작가 위주로 수여돼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한강의 수상은 아시아, 그것도 50대 초중반 여성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소설 기저에 '광주'의 문학적 DNA'가 드러워져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5·18의 참상을 시적인 문체와 절절한 감성으로 그린 수작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적인 작가에게 박수를 보낸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